〈인문사회계열〉

문제지

모집단위											
성 명											
수험번호	2	1	1	0	8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고사

□ 문제수 및 고사 일시

문제수	일 시	배 점
3	2020. 12. 8.(화) 15:30~17:10(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를 정확히 쓸 것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음(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볼펜, 사인펜)**만 사용
  (연필, 샤프, 지워지는 볼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함
- **답안을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연필, 샤프, 지워지는 볼펜 포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를 2매 이상 사용한 경우(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채점 불가)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중간 부분 줄거리: '나'는 아버지가 그동안 충분히 일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조들도 모두 고생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린다. 아파트 입주권 가격은 자꾸 오르고,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없는 행복동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아 동네를 떠나기 시작한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 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뒷부분 줄거리: 난쟁이 가족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지만,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사라진 영희와 아버지를 찾느라 남은 가족은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 철거당한다.)

(나)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다)

(앞부분 줄거리: 석방 포로 이명준은 중립국 인도로 향하는 타고르 호를 타고 있다. 그는 뱃전에서 지난날을 회상한다. 이명준은 광복 직후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서 취조와 구타를 당하고 감시를 받으면서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회의에 빠지게 된다. 명준에게는 북한에서 만난 윤애와의 사랑이 유일한 구원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명준은 낙동강 전선에서 포로가 된다. 그의 아이를 임신한 윤애는 전사한다. 포로 송환 과정에서 명준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 인도를 선택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

"동무, 지금 인민 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뒷부분 줄거리: 자신을 따라붙는 갈매기 한 쌍에서 윤애와 윤애가 임신한 아이의 환영을 보고 그것에 쫓기던 명준은 타고르호에서 실종된다.)

(라)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혜밍웨이 장자(莊子)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 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知性)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思索)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톳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 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보기>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문학의 가치를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논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보기>

이 대목을 쓰려니까 갑자기 내 의식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음성으로 향한다. 겨울밤엔 고구마나 감, 그것이 아니면 하다못해 동치미라도 먹을거리로 내놓으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수절 과부의 이야기를, 도적질하다가 벌을 받은 그녀의 친지 중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하신다. 그때에 내가 느낀 공포와 아픔, 고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아픔이나 고통 밑에 있는,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주는 쾌감을 내가 얼마나 즐겨했던가!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 즐거움 이쪽에서, 오랜 후에 혹은 즉시로 우리는 해야 될 것에 대한 의무감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처럼 문학은 억압 없는 쾌락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준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것을 읽는 자에게 반성을 강요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안 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이래야 행복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1999)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한 가정, 이 집에 로봇 '앤드루'는 가사를 도맡을 첨단 가전제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앤드루는 로봇에게는 있을 수 없는 지능과 호기심을 지니게 된다. 점차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앤드루는 진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다. (……) '로봇 같다'는 말, 우리는 흔히 감정이 없는 냉정한 사람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인공 지능 기술 즉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면서, 인공 지능 로봇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 인공 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영화에서와 같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해 행동하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차지해 가는 현상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나)

우리의 삶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 만남이 우리를 주체로 분리하고 자리 잡게 한다. 나의 삶은 타자의 호소와 명령에 응답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 타자란 정복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환대를 해야 할 성원이다. 고통받는 모습으로 타인이 호소할 때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중에 주체로서 주체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다)

렘브란트의 <튈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는 데카르트의 인간 이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장면을 보여 준다. 뛰어난 해부학자인 튈프 박사는 암스테르담 외과 의사 조합의 해부학 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림을 보면 해부 작업을 하는 박사나 주변의 청강생 모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박사는 지극히 평상심을 유지하는 표정이고, 청강생들에게서는 신기하고 놀랍다는 정도의 감정만 보인다. (……) 만약 해부 대상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의 표정에 일정한 감정의 동요가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부 대상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시신 또한 하나의 물체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신 해부 작업은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는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근대적 인식의 토대를 마련한 데카르트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 주는 장면이다. 인간 본질을 이성에서 찾는 그의 생각에 따르면, 정신 기능이 정지된 시신은 물질적 성분을 중심으로 한 물체에 가깝다. 의심하고 탐구하는 이성이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면, 그림에서 탐구 정신을 보이는 박사나 청강생이 여기에 가깝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비로소 인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인간 본질을 이성에만 기초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동물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럽에서 마취제 없이 이루어진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라)

인간이 아닌 동물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리의 갯수, 피부에 털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뼈의 모양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깨닫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차별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이성적 능력 때문인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 때문인가? 다 자란 말이나 개는 갓난아이보다 훨씬 합리적이며, 인간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물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문제는 동물들이 '이성적인가' 혹은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또한 피터 싱어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감정을 지닌 존재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투표의 권리나 교육받을 권리 같은 인간의 권리를 동물에게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을 피하고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

'구두끈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물질의 최소 단위와 같은 기본 구성체로 환원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자기 조화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사상은 물질세계 전체를 상호 연결된 관계의 그물로 보는 생각의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서, 물질의 최소 단위 개념 자체를 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본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주는 상호 연결된 사건의 역동적 그물이라는 것이다.

제시문 (가), (나), (다), (라), (마)를 모두 활용하여 <보기>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글을 작성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보기>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 미래에는 인공 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떤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진다. 이는 기존의 인간과 기계 문명 사이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와의 경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변모된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삶을 영위해 온 다른 타자들과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고, 임금이 가벼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天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어야 제후(諸侯)가 되고, 제후에게 신임을 얻어야 대부(大夫)가 된다. 제후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 제사를 제 때에 지냈으나, 그런데도 가뭄이 들거나 물이 넘치면 국가의 수호신인 사직의 자리를 바꾼다. 임금이 백성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백성의 재물만 착취하여 원망을 받는다면, 이는 이미 임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나)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도하여 자유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과 심야 작업을 금지하는 공장법이 유럽 최초로 제정되었다. 또한, 국교도에게만 관직을 허용하던 심사법을 폐지하고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여 종교 차별을 금지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인구 이동이 늘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832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패 선거구를 없애고 신흥 상공업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되어 국가 규제가 완화되었다. 곡물법의 폐지는 산업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항해법의 폐지는 영국이 자유 무역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다)

조선 세종 때, 명문거족인 이조 판서 홍공과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庶子)로 태어난 길동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 병서와 도술을 체득했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 학문과 무예의 연마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온갖 천대와 구박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가족들은 그의 비범함이 장차 화근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 그를 암살하려고 한다. 결국 길동은 모친의 충고로 암살의 위기를 벗어나 정처없는 방랑의 길을 떠난다. 집을 나온 길동은 비분을 삭이며 떠돌다가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 힘을 겨루고 도적의 두목이 된다. 길동은 해인사의 재물을 기이한 계책으로 탈취하고 '활빈당'(活貧黨)이라 자처한다. 그 후로 길동은 기이한 계략과 도술로 팔도 지방 수령들로부터 불의의 재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에 국왕이 길동을 잡으라는 체포령을 내리자 전국에서 잡혀 온 길동이 300여 명이나 되었으나, 도술을 부리는 길동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홍판서를 시켜 길동을 회유하여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고 병조 판서를 제수한다. 병조 판서가 된 길동은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로 시선을 돌린다. 고국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가 산수가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한다. 그는 다시 돌아와 조정에서 정조(正租) 1천 석을 얻고, 3천 도당을 거느리고 율도국의 요괴를 퇴치해 볼모로 잡혀온 미녀를 구하고 그곳의 왕이 된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3년상을 치른 뒤에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가 기존의 경제적, 신분적 불평등을 타파한 이상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홍길동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삼 년 만에 율도국은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는 태평세계가 되었다.

(라)

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는 구제도의 모순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제1 신분인 성직자와 제2 신분인 귀족이 전 인구의 약 2%였으나, 이들은 교회, 군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대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세금도 면제받았다. 반면 제3 신분인 평민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다. 한편 프랑스 왕실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와 미국 혁명 지원 등으로 재정이 매우 궁핍해졌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삼부회는 소집되자마자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였다. 제3 신분은 머릿수 표결 방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국왕이 국민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하자, 파리 민중은 이에 저항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민중의 저항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봉건적 부담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봉건 문서를 불태웠다. 결국 국민 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국왕이 국외로 탈출하다가 체포되면서 국왕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후 입헌 군주제와 제한 선거제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 의회가 해산되고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한편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입법 의회는 선전 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시작하였다. 왕과 보수 귀족이 적과 내통한다는 소문에 과격해진 파리 민중은 왕궁을 습격하여 왕권을 정지시켰다. 결국, 그들은 왕정을 폐지하고 제1공화국을 선포했다.

제시문 (가), (나), (다), (라) 각각의 내용을 <보기>에 제시된 혁명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보기>

혁명은 '대중 동원', '제도 변화', '사회 정의의 이상을 담은 이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즉, 혁명은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정부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